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어느 주말에 겪은 강연 소동

장석주
시인

지난 주말 오후에 K시의 한 대형 쇼핑몰로 인문학 강연을 하러 갔다. 봄비 내리는 주말 오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강연 시각보다 이르게 도착할 수 있게 출발했다. 그런데, 대형 쇼핑몰 주차장 인근은 차들로 넘쳐났다. 만원이었다.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는 차들이 긴 줄을 이루고 있는 통에 주차에만 40여분을 소비했다. 지하 주차장에 가까스로 주차를 하고 쇼핑몰 안 강연장을 찾는데 또 시간을 지체했다. 쇼핑몰 매장의 규모가 엄청났던 것이다. 인파로 바글거리는 주말 오후 그 광활한 소비 천국에서 나는 길을 잃고 헤맸다.

발걸음을 재촉해 강연장에 도착해서 오, 맙소사! 내 앞에 눈을 의심케 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고야 말았다. 넓은 강연장엔 청중 세 분이 평화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쇼핑 매장은 발 디딜 곳조차 없이 인파가 북적거렸는데, 강연장은 무인도처럼 적막했다. 여러 강연을 다녔지만 이런 굴욕을 당한 건 처음이다. 비명은 지르지 않았지만 내 얼굴은 붉어졌다. 애초 이 강연이 마뜩치 않았다. 하지만 내 책을 구매해 참석자에게 무료로 나눔 한다는 꼬드김에 넘어가 강연 수락을 한 것이다. 출판사 영업부장님도 일부러 가족과 강연장을 찾았다가 몹시 실망한 눈치였다.

나는 태연하게 성심성의껏 강연을 했다. 강연장 앞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세 분은 강연을 조용히 경청하셨다. 세 분에게는 눈물 나올 정도로 고마웠다. 강연을 마치고 세 분의 책에 서명을 하고 밖으로 나오는데, 조지 오웰이 한 말이 떠올랐다. "광장에 모인 인파를 흩어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를 읽어주는 것이다." 시가 대중에게 어떤 대접을 받는가를 재치 있게 표현한 말이다. 사람들은 대체로 시나 인문학에 심드렁하다. 어머니는 나를 붙잡고 "그까짓 시는 뭐 하러 쓰나? 밥이 나오더냐 떡이 나오더냐? 그러다가 굶어 죽기 딱 좋으니라."라고 꾸짖곤 했다. 어머니는 내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시' 따위를 쓰면서 사람 구실을 못할 걸 염려했던 것이다.

주말의 쇼핑몰은 붐볐지만 같은 장소의 강연장을 찾은 사람은 달랑 세 분이었다. 왜 사람들은 인문학 강연을 외면할까? 시나 인문학 강연이 쇼핑보다 덜 재미있을 뿐더러 무용하다라고 판단했을 테다. 사람들은 시나 인문학이 인간의 생물학적 필요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확증 편향을 갖고 있다. 각자의 생업에 매진하던 사람들이 주말 쇼핑몰 나들이에 나와서 가족들과 함께 쇼핑하고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것을 나는 이해하고, 이해하고, 또 이해한다. 애초 볼거리와 놀거리로 가득 찬 쇼핑몰에서 뜬금없이 인문학 강연을 위해 모객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무리가 아니었을까?

인문학의 홀대를 두고 실망할 필요는 없을 테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더 유용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인간이 꼭 쓸모 있는 것만 하고 살지는 않는다. 장자의 '무용지대용(無用之大用)'을 생각해 보라. 쓸모없음의 큰 쓸모를 찾아낸 동양의 현자가 퍼뜨린 천년된 거목의 우화는 2천 년이 넘어서도 회자되고 있다. 장자의 거목은 얼마나 클까? 꼭대기는 하늘에 닿고 나무 그늘에는 소 네 마리가 끄는 마차 천 대가 들어간다고 했으니, 그 크기는 상상으로만 가늠해 볼 수 있을 테다. 작은 쓸모라도 있으면 싹뚝 잘라 가버리니 나무는 천년 동안 제 자리를 지키고 있을 도리가 없었으리라. 저 거목은 쓸모가 없었던 탓에 천년 동안 베임을 당하지 않은 채 자라날 수 있었다.

주말의 강연장에서 쓸모없는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고 생각하자. 사람들은 인문학을 무시하고 지나쳤다지만 먼 훗날 내가 강연에서 뿌린 것들이 싹을 튀우고 거목으로 자랄지도 모른다. 강연은 끝났지만 복잡해진 심경을 안은 채 집에 가고 싶지는 않았다. 마침 배도 고팠다. 강연장을 나와 근처 냉면집을 찾았다. 탈북민이 창업했다는 냉면집은 냉면이 맛있기로 소문난 곳이었다. 나는 놋그릇 담겨 나온 슴슴한 냉면 국물을 들이켰다. 냉면 육수는 시원하고 면은 담백했다. 냉면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니, 주말 강연으로 생긴 소동이 남긴 복잡한 심경 따위는 씻은 듯 사라졌다.

종교칼럼

'라제통문(羅濟通門)'을 넘나들며

최현열
광주 온교회 담임목사

내가 중학교 시절을 보냈던 곳은 전북 무주였다. 무주읍에 있는 무주중학교를 다니다가 1학년 말쯤에 무풍면에 있는 무풍중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 무주읍에서 출발하여 설천면을 지나 계속 가다보면 삼거리가 나오는데 거기서 갈라져 구천동으로 향하는 방향과 또 한편으로는 무풍면을 향하게 된다. 그 길로 들어서면 큰 바위 사이로 도로가 뚫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곳을 가리켜 라제통문이라 부르는데 높이 3m 길이 10m 자연암석을 인위적으로 관통해 만들었다. 한자로 라제통문(羅濟通門)이라 상단에 새겨져 있다. 당시에는 막연하게 신라와 백제 사람들이 오가기 위해 뚫어놔서 긴 역사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여겼다. 그리고 그 이유로 이름을 붙였나 보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라제통문은 무주의 덕유산과 석모산 사이에 있는 석굴 문이다. 이곳은 삼국시대 신라와 백제의 국경을 이루던 곳으로 추정되고 굴이 생기기 전에 석모산은 무풍면과 설천면을 오가던 사람들이 넘어 다니던 고갯길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굴을 경계로 동쪽과 서쪽의 언어와 풍습이 서로 다른데 옛 신라 지역인 동쪽(무풍면)은 경상권 방언을 쓰고 풍습도 경상권을 따르며 옛 백제 지역인 서쪽(설천면)은 전라권 방언을 쓴다. 일제 강점기에 금광 개발 등을 위해 굴을 뚫었다고 하는 가슴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직접 보면 괭이 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어 지금처럼 정교한 모습보다는 투박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나는 무풍중학교로 전학을 간 후 참 놀라운 경험을 하였는데 분명 행정구역으로는 전라북도인데 친구들이나 동네 주민들은 모두 경상도 말을 쓰고 있었다. 전학을 해서 학교에 등교한 첫 날을 잊을 수가 없다. 재잘재잘 떠드는 친구들의 말씨가 전부 경상도 사투리였기 때문이다. 그 당시 친구들 말로는 원래 경상도였다가 행정구역 개편할 때 전북 무주군으로 편입되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뭔가 어색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했다.

"밥 묵었나?", "니 공부 잘하나?", "앞으로 친하게 지내제이" 억양은 표시할 수 없으니 글로 표현하기는 힘들다. 어릴 때부터 전라도 말에 익숙하게 지내다 보니 처음에는 '뭐라고?'하면서 친구들이 하는 말들을 다시 묻곤 했던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 주민들의 생활권이 무주읍이 아니라 김천시와 거창이었다. 나도 영어 공부를 위해 김천에 있는 영어학원에 다녔고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는 김천고와 거창고를 염두해 두고 있었다. 결국에는 전주에 있는 상산고로 가게 되었지만 말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이사를 참 많이 다녔다. 목회하는 아버지도 그랬지만 나 또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지역을 다녔다. 그러면서 느끼는 한 가지가 있는데 사투리 때문에 말씨가 좀 다르긴 해도 사는 모습들은 그리 달리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기가 막힐 정도로 극명하게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정치(정당)에 대한 지지였다. 예수께서 산상수훈(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것)에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말씀이 있다. 구약과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르는 주된 가르침은 '거룩' 이었고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철저한 율법정신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차별과 분리로 스스로 그 근본정신을 망각한채 허상만이 남아 있었다.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 예수님은 '온전'이라는 것이 더 낮고 더 높은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치셨다. 이 말씀은 '나누이지 않고 하나인'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를 보면 언제나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동서가 나뉘어져 있다. 어릴 적 살았던 지역의 라제통문을 생각해 보면서 전라도이든 경상도이든 그것은 행정적인 구분일 뿐 대한민국의 영토요 한 국민이 아니던가. 예수님은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같이 가주고, 꾸어 달라는 사람에게 등을 돌리지 말라"라고 하셨다.

사랑함으로 하나 된 나라, 아울러 동서남북이 온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도한다.

기 고

'광주 아시아여성영화제'를 꿈꾸며

김채희
광주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광주여성영화제는 광주에서 열리는 가장 큰 영화제이자 '여성'을 주제로 한 가장 활발한 문화축제이다. 매해 수많은 광주시민들이 관객으로, 창작자로, 스태프로, 자원활동가로, 심사위원 등으로 영화제를 함께 만들어간다.

2010년, '여성의 눈으로 보는 세상, 모두를 위한 축제'라는 슬로건으로 시작된 광주여성영화제는 매해 새로운 여성 의제를 제시하고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만듦으로써 지역사회에 성평등 문화를 확산해왔다. 또한 여성 영화인들을 지원하고 지역 영화산업과 영상 문화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전국의 영화인들이 오고 싶어 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지역영화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작년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 '아시아'로의 내용과 형식의 확장을 제안하게 되었다.

아시아 여성들은 비록 각기 다른 곳에 살고 있지만 과거 제국주의 침략전쟁의 상흔이 공통으로 남아있고,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시대의 온갖 폭력과 차별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지금도 글로벌 경제위기와 돌봄의 위기, 기후변화 위기 등에 함께 직면해 있다.

그동안 '아시아' 영화는 이러한 특별한 아시아의 역사적 경험들이 서구의 시각에서 보편성을 획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오리엔탈리즘으로 전시되곤 했다. 최근 아시아 영화들은 '아시아'에 대한 서구적 관점을 해체하고 다양한 아시아 지역의 복잡한 현실과 역사적 문제들을 가시화하며 '아시아성'을 새롭게 쓰고 있다. 특히 많은 아시아 여성 감독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주류 서사 영화의 문법을 해체하거나 전유하며 영화의 서구·남성 중심성을 해체하며 아시아, 여성, 소수자의 서사를 펼쳐가고 있다.

광주에서 '아시아' 영화제를 한다는 것은 서구 중심을 탈피하겠다는 것이다. 서구에서 아시아 영화를 소비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시아 영화가 유통되는 방식을 변화시키겠다는 선언이다.

작년 11월 열린 14회 광주여성영화제에서 진행한 특별포럼 '여성의 영화적 시선:광주아시아여성영화제의 비전'에 초청된 페차 로 대만국제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은 광주에 온 소감을 이렇게 전했다. "오래전부터 민주의 도시, 광주에 관심이 많았지만 직접 오게 된 건 처음이다. 광주에 간다고 하니 모두들 부러워했다. 광주에 와서 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국제적인 영화제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홍콩이나 미얀마처럼 최근 민주화 운동이 활발한 아시아지역에서 광주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 배우고자 한다는 기사는 많이 접해 알고 있었지만 대만에서도 광주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관심이 많다는 건 의외였다. 이는 인권과 민주의 도시로 상징되는 광주의 문화적 자산일 것이다.

광주가 가진 문화적 상징성 외에도 수도가 아닌 로컬로서 광주는 그 지역성으로 인해 서구와 아시아, 아시아와 한국, 중심부와 주변부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도시이다. 광주는 이런 비판적 관점을 유지하며 서로 다른 아시아들과 횡적으로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과 그 역사성으로 인해 광주에서 아시아 여성영화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소수자성,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저항하는 시민의 역사와 시민사회 등을 함께 고려한다는 의미이다. 아시아의 문화적 교류를 위한 교차점을 만드는 것은 '광주'의 역사와 현재적 위치성을 고려했을 때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광주, 아시아, 여성, 영화 이 모든 역동성과 교차점에 주목하며 아시아 여성영화를 프로그래밍하고 영화를 통한 소통과 연대의 장을 마련, 한데 어울러질 수 있는 한판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베트남의, 이란의, 인도네시아의 여성감독들을 광주에서 만나고 아시아 인재들의 영화적 상상력을 인큐베이팅하며 아시아 여성영화의 교류와 네트워킹을 통해 진정한 아시아문화의 허브가 되는 것.

광주에서 '광주 아시아여성영화제'를 한다는 것은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되었던 그 모든 권위적 질서에 대한 해체이며 가장 진보적인 문화적 실천이자 진정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社說

과학적 근거로 군공항 이전 입지 제시했다

광주·전남의 최대 현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유력 후보지인 무안지역 내 입지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그제 무안 초당대에서 열린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에 대비한 소음대책 마련 토론회' 자리였는데, 토론회는 광주·전남 지방시대위원회와 국방부 등이 마련했다. 광주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광주 군공항 이전 최적 후보지는 무안 망운·운남·현경 등 3개 면으로 무안군 전체 면적의 4.2%에 해당한다. 거주 인구 기준으로는 10% 가량 된다.

광주 군공항 이전 입지가 구체적으로 거론된 것은 처음으로 논란을 예상하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도라고 할 것이다. 연구진은 무엇보다도 군공항 특성상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무안군민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대 여론이 높았던 일로읍·청계면·삼향읍 등 3개 읍면은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부지 면적을 현재 광주 군공항보다 1.4배 늘리고 소음완충지역 110만평도 더해 결과적으로 광주 군공항보다 시설을 1.9배 늘려 생활에 지장을 주는 85웨클 이상의 소음을 원천적으로 줄였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1.9㎞ 떨어진 해안가에 배치해 군·민간 공항간 연계를 하면서도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연구결과라고 할만하다.

토론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참석해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개발사업 지원과 유인책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광주·전남과 무안이 상생하는 방안인데 주민들이 싫다면 광주시가 구상하는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협박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고심과 의지로 읽힌다. 누군가, 언젠가는 군공항 이전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결정권을 무안군민들에게 넘겼다고 할 것이다. 이제는 무안군민들의 현명한 결정만 남았다. 다만 지역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군공항 문제를 이용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5·18 왜곡 대응 말하면서 예산은 전액 삭감

광주시가 5·18 왜곡 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천명해놓고 정작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해 논란을 빚고 있다.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5·18기념재단이 요청한 5·18 역사왜곡 대응 지원 사업비를 한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 18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727억원을 편성해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5·18기념재단이 예산 추가 편성을 요구한 역사왜곡 대응 지원사업비는 아예 배제했다.

기념재단은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에 역사왜곡 대응 지원사업비 명목으로 왜곡 대응 예산 6000만원, 오월길사업단 운영 예산 7000만원 등 총 1억 3000만원을 추경안에 편성해줄 것을 요구했다. 본예산에서 삭감돼 4650만원만 반영된 왜곡대응 예산으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서다. 그러나 광주시 관계자는 "본예산 편성 당시 시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광주시에서 같은 명목으로 재차 올리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번 추경은 중요도가 낮은 사업의 예산은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념재단은 기존 시비로 충당하던 왜곡·모니터링 예산을 국비 지원금으로 충당하는 자구책을 마련했다. 실제로 지난 1월 예산 부족으로 왜곡 대응·모니터링 요원 1명과 재계약을 포기했고 현재 부장급 1명, 팀장급 1명 등 2명이 왜곡 대응 사업을 맡고 있다.

광주시의 5·18 역사왜곡 대응 예산 삭감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갈수록 5월 왜곡 사례가 노골화되는 상황에서 한푼도 반영하지 않은 건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5·18 왜곡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근래 5월 폄훼 행태가 교묘해지는 만큼 광주시는 시의회와 협의해 삭감 예산을 살려내는 한편 간접지원 방안을 찾는 등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소음과 신호

빅 데이터의 시대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까. 사람들은 데이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삶에 새로운 동력을 얻으려 하지만 효과적인 활용은 쉽지 않다. 미국 작가 네이트 실버는 저서 '신호와 소음'에서 대량의 데이터 속에서 어떻게 잘못된 정보(소음)를 걸러내고 의미 있는 정보(신호)를 찾을 것인가를 알려준다. 책은 날씨와 지진 등 자연현상, 야구와 포커 같은 게임, 나아가 경제지표와 선거 등 경제 및 정치의 영역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흥미로운 미래 예측 사례를 소개하고 실패한 이유를 분석한다.

예측은 데이터가 많다 해서 쉬운 것은 아니라고 한다. 정보가 많으면 '신호'도 많아지고 불필요한 '소음'의 양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선입견을 버리고 데이터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번 4·10 총선 과정에도 각종 정보가 넘쳐났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예측은 대부분 빗나갔다. 표심의 불확실성을 간과하고 '자기 확신의 오류'에 빠진 탓이다. 잘못된 예측은 정당의 선거 전략에도 혼선을 준다. 공식 선거전 초반에 나온 '여당 170석' 전망과 막판에 불거진 '야당 200석' 예상은 여야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선거 결과는 108대 192.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해 극단적인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졌다.

선거의 3요소는 구도·이슈·인물이라고 하는데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 이슈가 모든 것을 압도했다. 금사과에서 대파로 이어진 고물가, 불통의 상징이 된 '입틀막', 끝이 안 보이는 의료대란 등에 심판 여론이 들끓었다. 여기에 널뛰기 여론조사 결과와 '비명횡사'로 언론이 대서특필한 민주당의 공천 갈등은 신호와 소음을 구분하기 어렵게 했다.

총선이 끝난 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민심은 정권에 또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더 이상 신호를 소음으로 듣고, 소음을 신호로 착각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신호와 소음' 저자는 실수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려고 마음먹으면 데이터는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로 바뀔 것이라고 강조한다.

/유제관 편집담당1국장 jkyou@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전남본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